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제593호

지면안내 **03** 사회 기피되는 블루칼라, 대책 마련 시급 **04** 문화 여러 갈래로 뿔어나간 소리 **05** 사람사 콘텐츠 범람 시대 속 고유한 철학을 담아내다 **06** 학술 우리가 만든 지구의 역사, 인류세

‘만족’ 압도적인 한상, “가격은 부담”

2주년 맞은 원스톱센터 학생 만족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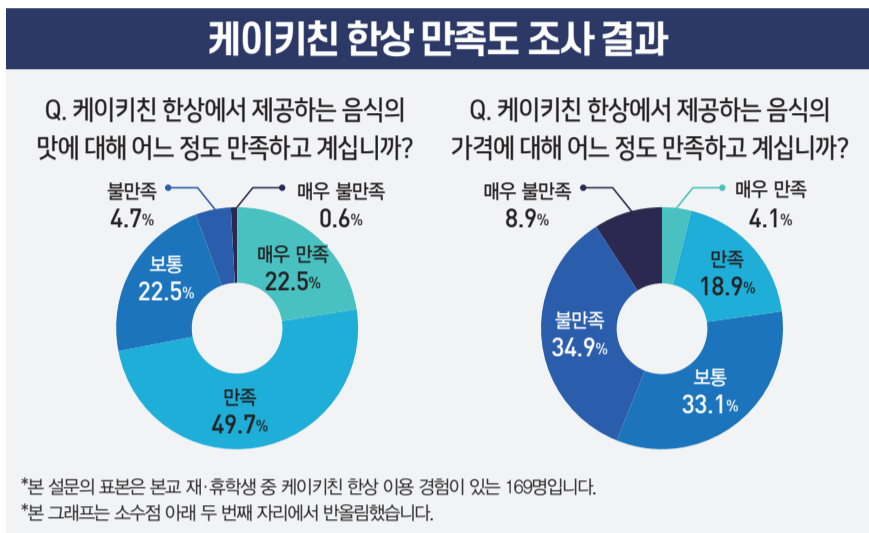
본교 상상관 12층에는 학교기업 레스토랑 ‘케이키친 한상(이하 한상)’이 자리하고 있다. 한상은 본교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학교기업으로, 미래플러스대학 호텔외식경영학과 학생의 실습 장소 제공 및 교내 구성원과 지역 주민에 대한 음식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10월 6일을 기점으로 한상이 개점 1주년을 맞았다.

이에 본지는 한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케이키친 한상 만족도 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한상을 이용해 본 적 있는 본교 재·휴학생 169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한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을 비롯해 ▲맛 ▲위생 ▲시설 ▲운영시간 ▲메뉴 ▲가격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됐다.

한상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한상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14.2%)’, ‘만족(42.6%)’이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56.8%였다. ‘불만족(13%)’, ‘매우 불만족(1.8%)’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존재했지만, 14.8%로 만족 의견과의 차이가 컸다. 하동우(ICT 3) 학생은 “가격과 메뉴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한상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 한상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맛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아, 맛이 한상에 대한 전반적 만족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됐다. ‘매우 만족(22.5%)’, ‘만족(49.7%)’이라고 답한 비율이 72.2%로 ‘불만족(4.7%)’, ‘매우 불만족(0.6%)’보다 높았다. 민기동(미플 3) 학생은 “외부 음식보다 더 신선하고 고유한 맛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상의 위생 또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확인됐다. ‘한상의 위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40.2%)’, ‘만족(45.6%)’,



‘보통(13%)’, ‘불만족(1.2%)’ 응답이 나와, 85.8%에 달하는 응답자가 만족 의견을 남겼다. 황서영(사회과학 1) 학생은 “식기류 등 위생적인 부분에서 불만족한 경험은 없다”며 “창의관 1층 학생식당과 비교해 식기류가 비위생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의 시설에 대해서도 만족한 학생이 대다수였다. ‘한상의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23.1%)’, ‘만족(43.8%)’, ‘보통(28.4%)’, ‘불만족(4.7%)’의 응답이 기록됐다. 특히 대다수 학생은 상상관 12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에 만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식당의 교내 위치가 접근하기 좋아서(56.6%)’, ‘식당내 좌석이 충분해서(51.3%)’, ‘테이블과 의자가 편안해서(50.4%)’ 등의 응답이 기록됐다.

‘한상의 운영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20.1%)’, ‘만족(45.6%)’, ‘보통(25.4%)’, ‘불만족(8.9%)’ 등의 응답이 집계되며 대다수 학생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상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이다.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학생식당이 영업하지 않는 토요일에도 운영한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운영시간에 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시간이 넉넉해 이용이 불편하지 않아서(64%)’, ‘아침 식사가 필요하지 않아서(34.2%)’,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32.4%)’ 등의 응답이 도출됐다.

운영시간의 개선을 바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브레이크 타임이 학생식당과 비교해 길고, 시간대가 겹쳐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황 학생은 “한상의 브레이크 타임이 학생식당과 다르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한상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의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만족(13.6%)’, ‘만족(35.5%)’, ‘보통(34.9%)’, ‘불만족(13.6%)’, ‘매우 불만족(2.4%)’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49.1%였다. 만족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요일별로 메뉴가 교체되는 방식이 만족스러워서(50.6%)’, ‘메뉴의 다양성이 확보돼 있어서(45.8%)’, ‘메뉴의 수가 충분해서(33.7%)’ 등의 응답이 기록돼, 요일마다 다른 메뉴를 내놓는 ‘오늘의 메뉴’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메뉴의 개수를 늘려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상 메뉴의 개수는 오늘의 메뉴를 포함해 9개다. 한 학생은 “한상의 메뉴 중 학생식당 메뉴와 겹치는 메뉴도 있고, 가짓수 자체도 부족해서 신메뉴가 개발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항목에 만족도가 높은 것에 비해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상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4.1%)’, ‘만족(18.9%)’, ‘보통(33.1%)’, ‘불만족(34.9%)’, ‘매우 불만족(8.9%)’ 응답이 도출돼, 43.8%의 학생이 불만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들은 불만족 이유로 ‘시중 음식점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싸서(59.5%)’와 ‘음식의 질에 비해 가격이 적절하지 않아서(47.3%)’, ‘음식의 양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적절하지 않아서(29.7%)’ 등을 꼽았다. 가격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은 가격 인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민 학생은 “학생 입장에서 지금의 가격대는 비싸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또한 “1만 원 이하의 가격의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한 개는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상 메뉴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학교급식법』 제16조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에만 의무사항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상 음식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86.4%)’, ‘아니오(13.6%)’로 대다수의 학생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황 학생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돼 있어야 학생들이 마음을 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민 학생도 “사전에 알레르기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건희 기자 enqnk@hansung.ac.kr

본교 학생은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학생원스톱지원센터(이하 원스톱센터)’를 찾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학생은 상상관 1층 원스톱센터 현장이나 원스톱센터 홈페이지, 유선 등을 통해 ▲각종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 ▲분실물 및 습득물 찾기 ▲민원 상담 및 처리 ▲상상베이스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본사는 지난 1일 개소 2주년을 맞은 원스톱센터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및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원스톱지원센터 만족도 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구글폼으로 진행됐으며, 본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등 총 132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원스톱센터 이용경험 유무, 원스톱센터 현장·홈페이지·전화 서비스 만족도 등의 의견을 묻는 문항들로 이뤄졌다.

설문 응답자 중 절반가량이 원스톱센터 이용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스톱센터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53%)’, ‘아니오(47%)’의 응답이 도출됐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중 다수는 원스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센터를 이용해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원스톱센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66.1%)’, ‘원스톱센터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35.5%)’, ‘원스톱센터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2.3%)’ 등의 응답이 기록돼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2면에 계속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낙산에 올라 소리치는 당신의 생각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제 | 자유 주제

분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1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5.5매)

혜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재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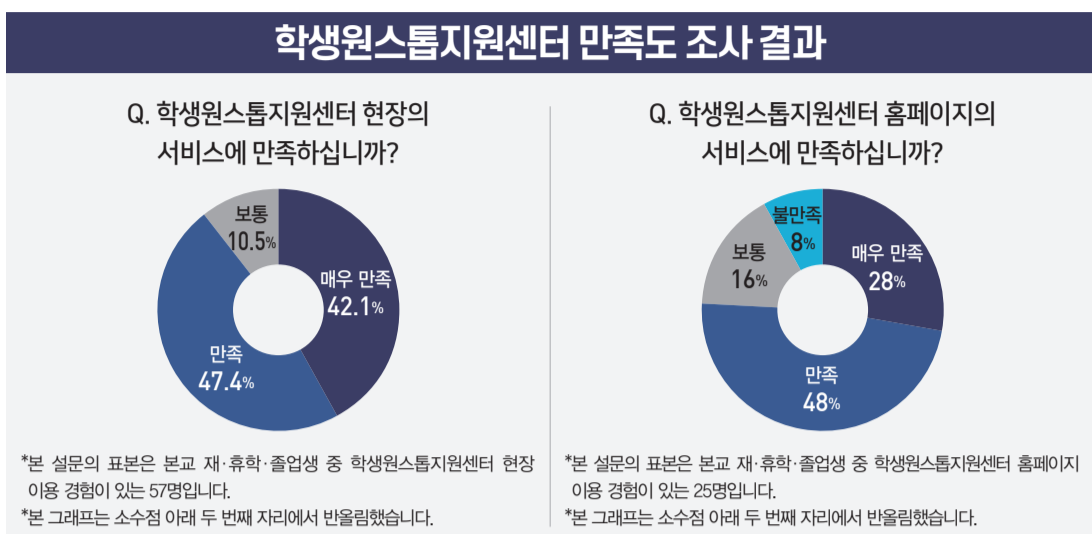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hansungnews

이용자 대부분 만족... “홍보도 적극 진행할 예정”

원스톱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부분은 원스톱센터의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원스톱센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35.7%)’, ‘만족(50%)’, ‘보통(14.3%)’이라고 응답해, 응답자 중 85.7%가 원스톱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정윤아(인문4) 학생은 “증명서 발급이나 분실물 찾기 등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원스톱센터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대부분은 원스톱센터 서비스를 현장에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상관 1층에 위치한 원스톱센터에서는 ▲각종 증명서·신분증 발급 ▲분실물 및 습득물 찾기 ▲민원상담 및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원스톱센터 현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니까?’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예(81.4%)’, ‘아니오(18.6%)’라고 응답했다.

원스톱센터 현장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대다수는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스톱센터 현장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42.1%)’, ‘만족(47.4%)’, ‘보통



(10.5%)’ 응답이 기록돼, 89.5%의 응답자가 만족 의견을 남겼다. 현장에서는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만족의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김민선(AI응용 2) 학생은 “학내 문제와 관련해 원스톱센터에 문의했는데, 상주 직원이 신속하게 담당 부서로 연결해 줘서 문제 해결이 금방 이뤄져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원스톱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스톱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학생증 발급 절차 확인 ▲분실물 현황 파악 ▲Q&A 민원서비스

이용 ▲상상베이스 예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스톱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니까?’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예(35.7%)’, ‘아니오(64.3%)’ 응답을 남겨, 절반 이상의 학생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몰라서(68.9%)’, ‘현장 방문 또는 통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해서(40%)’,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8.9%)’ 등의 답변이 기록됐다. 홈페이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센터 홈페이지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질문에는 ‘매우 만족(28%)’, ‘만족(48%)’, ‘보통(16%)’, ‘불만족(8%)’의 응답이 기록돼 76%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 이유로는 ‘홈페이지에서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해서(73.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57.9%)’, ‘직원과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돼서(26.3%)’, ‘민원 처리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서(21.1%)’ 등의 응답이 도출됐다. 정 학생은 “홈페이지에는 증명서나 학생증 발급 등 각 업무의 바로가기 링크가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전화를 통한 원스톱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자 또한 현장 서비스 이용 경험자에 비해 적었다. 전화로 원스톱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증명서·신분증 발급 안내와 민원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원스톱센터의 서비스를 통화로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니까?’라는 질문에 ‘예(24.3%)’, ‘아니오(75.7%)’의 응답이 도출됐다. ‘통화로 원스톱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통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몰라서(49.1%)’, ‘현장 방문 또는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해서(49.1%)’, ‘원스톱센터 전화번호를 몰라서(20.8%)’ 등의 응답이 기록됐다. 정 학생은 “현장이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적은 것 같다”고 전했다.

‘통화를 통한 원스톱센터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47.1%)’, ‘만족(52.9%)’의 응답이 기록돼 통화로 원스톱센터를 이용한 모든 응답자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족 이유로는 ‘직원의 응대가 친절해서(58.8%)’, ‘공간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41.2%)’, ‘현장

에 방문하지 않아도 직원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35.3%)’, ‘민원과 관련한 부서와 바로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줘서(35.3%)’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김 학생은 “등록금 관련 문제로 원스톱센터에 전화했을 때 즉각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만족했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 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존재했다. 현재 원스톱센터는 학기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지윤(사회과학 1) 학생은 “학교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물어볼 곳이 없어 난감했다”며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경까지 늘린다면 좋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차문경(학생원스톱지원센터) 센터장은 “학생의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처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원스톱센터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학생회 등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한 홍보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종류의 민원이든 상관없이 학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일학습병행 참여자 모집

2024년 3월부터 ‘일학습병행’ 과정에 참여할 학생 모집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일학습병행은 기업현장실습 및 훈련과 학교수업 수업을 병행함으로써 청년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며, 현재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 모집 대상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면 내년 3월부터 7월 초까지 학교에서 지정 교과목을 수강한 후, 7월 중순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지정된 기업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한글과컴퓨터 등 14개의 기업이다.

선발은 ▲참여신청서 제출 ▲1

차 기업배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기업 서류심사 ▲기업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2025년 2월에 졸업예정인 ▲컴퓨터공학부 ▲IT융합공학부 ▲전자트랙 ▲정보시스템트랙 등에 속한 학생이 주 모집 대상이다. 희망기업은 3지점까지 작성 가능하며 특정 기업에 다수 학생이 지원할 시, 성적 평점평균이 기업 배정 기준으로 작용한다.

참여 학생은 4학년 1학기여를 계절학기(상상대학기)에 걸쳐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필수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이후 2학기에는 기업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최대 15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한 참여자는 ▲정부지원금 ▲교내 장학금 ▲비교과포인트 100pt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학습병행 이수 경험이 있는 최민지(컴공 19) 동문은 “일학습병행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었다”며 “현직자의 조언과 실무경험이 진로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장의성(IPP사업단) 단장은 “실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업 출신의 교수진이 담임 교수로서 도와 주고 있다”며 “학생들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진입로 확장 기념식 거행 본교 미래관 앞에서 ‘한성대학교 진입로 확장 기념식(이하 기념식)’이 지난 4일 개최됐다. 해당되는 진입로는 삼선동 아동·청소년 도서관 건립 부지인 사거리부터 한성대학교 주차장 진입 지점까지다. 기존 진입로는 폭이 좁아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로 불편을 겪었다. 2010년 12월에 진입로 확장공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나머지 구간의 진입로 확장을 완료했다. 이창원 총장 외 6인의 주요인사가 참석한 기념식은 ▲참석자 소개 ▲진입로 현황 및 결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에서 이 총장은 “이번 진입로 확장을 통해 교통 체증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등 기존 문제가 해소됐다”고 전했다.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한성대 한 책 『천 개의 파랑』 선정

천선란 작가 초청 저자와의 만남

☑ 주제 SF소설을 통해 경험하는 경계의 허물어짐

☑ 일시 11월 1일(수) 오후 2시

☑ 장소 낙산관 대강당

추천하여
한 책
증정

비교과
10PT

비교과 신청하러가기

한성한책읽기 참여사례 공모전

☑ 공모대상 본교 전 구성원 (개인 단위 참가)

☑ 공모기간 2023. 9. 27.(수) ~ 11. 17.(금)

☑ 공모주제 한성 한 책 읽기 프로그램 참여 후기 및 '한 책'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경험담

***한 책 읽기 활동**
한성 한 책 및 후보도서 독서, 한 책 추천 및 선정 투표, 나의 리뷰, 독서클럽, 독서아카데미(주제: 후보도서 독서토론), 한 책 선포 및 한 책 소개 영상 시청 등

☑ 시상

학부생	대상[50만원]*1명, 최우수상[20만원]*3명, 우수상[10만원]*5명, 장려상[5만원]*10명
대학원생 & 교직원	우수상[문화상품권 10만원]*1명, 장려상[문화상품권 5만원]*4명

*자세한 내용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참조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문의 . 02-970-5663

기피되는 블루칼라, 대책 마련 시급

블루칼라 청년 비율 감소 지속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주 원인

청년층 유입 위한 방안 마련해야

제조업, 건설업 등 블루칼라(blue-collar) 일자리를 선택하는 청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이 주로 화이트칼라(white-collar), 사무직 업종으로의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설 현장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53.1세다. 또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4.5%,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칼라의 사전적 정의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육체 노동자'이지만, 사회적으로 건설업이나 환경미화업 등 육체노동자 전반을 블루칼라의 범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영록(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은 "블루칼라는 사무직 노동자 등의 화이트칼라와 대비해 건설업이나 제조업과 같이 기술 및 기능을 필요로 하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블루칼라 업종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도 최근에는 대학 진학을 택하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 진학자의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는 47.3%로 나타났다. 이는 35.6%를 기록한 2018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임은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 노동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 기술을 익혀서 취업해도 중장기적으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청년의 수가 줄어들며 블루칼라 노동계가 고령화됨에 따라, 해당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덩달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29세 이하 청년 노동자의 비율은 2001년 29.7%에서 2021년 14.8%로 감소했다. 반면 5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의 비율은 2001년 11%에서 2021년 31.9%로 3배가량 증가했다.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블루칼라 업종으로 청년을 유입시켜 후속 세대로 다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청년이 충원되지 않아 고령자들의 일자리로 남는다면 결국 그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블루칼라 업종을 찾지 않는 청년의 반지리를 채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06년 약 54만 명에서 2021년 약 210만 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도 많다 보니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장 내에서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보니 숙련 노동자의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통해 블루칼라 업종의 반지리를 줄이려 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취업 관련 비자의 선발인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도를 늘리겠다고 지난 8월 밝혔다. 하지만 통상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이 길지 않아 이 같은 정책으로는 숙련 노동자를 양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기간 블루칼라 업종에 종사하며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돌아오면 숙련 노동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46%가 3년 미만 체류자였다. 이형준(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수석위원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는 궁극적인 인력난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 의존으로 인해 구조조정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력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황 또한 문제로 꼽힌다. 경력과 숙련도를 높여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이뤄지지 않기에 청년층이 블루칼라 업종에 장기간 몸담으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이하 기능등급제)'를 시행 중에 있으나,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시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장경력과 자격증, 교육훈련 등의 요소를 반영해 초·중·고·특급의 기능 등급을 제시하는 제도다. 각 건설 현장에서 등급에 따라 노동자를 적절한 보직에 배치하거나 등급에 적합한 임금을 산정하는 등, 노동자가 숙련도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은정(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력과 실력은 비례하지 않는데 현재 제도는 경력에 치중된 느낌"이라며 "부여받은 등급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제도 시행이 되지 않아 노동자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루칼라 업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또한 청년층의 유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건설 노동자를 '노가다', 공장 노동자를 '공돌이·공순이'와 같은 비하적 표현으로 지칭해 온 지난날이 블루칼라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 업종보다 낮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꼽힌다.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회계세무학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종건 학생은

"안전한 노동 환경과 직업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한 노동 환경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고용이 이뤄지는 화이트칼라 업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선호 현상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제시된다. 이어 정부 역시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 교수는 "저임금으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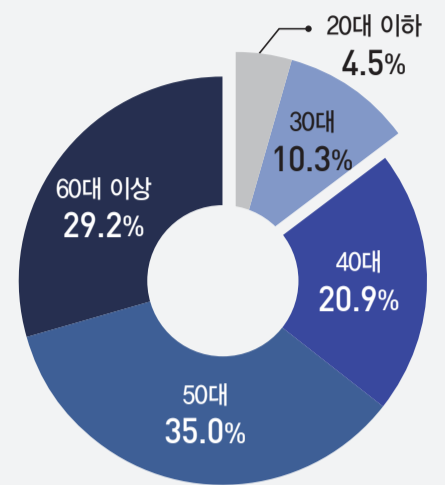
정부가 국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서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장에서 기능등급제가 쓰이지 않는 원인이 기능등급제의 등급 산정 기준의 모호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기능등급제는 현장경력과 자격증, 교육훈련을 모두 '경력연수'로 환산해 그 연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있다. 각 자격증 등이 몇 년의 경력연수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으나, 경력연수가 현행과 같이 책정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사업주가 기능등급제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고, 해당 제도를 기용하지 않으려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 연구위원은 "기능등급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보니 제도가 활용되지 않아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블루칼라 업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막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근무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지목된다. 블루칼라 업종의 노동 환경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고용불안정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강상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현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층을 블루칼라 업종으로 유입시키고, 장기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고용 정책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청년 숙련 노동자를 양성해야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돌아갈 때 발생하는 숙련자 부재 문제를 예방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박 선임연구원은 "정부와 기업의 투자를 통해 청년 노동자를 양성해야 한다"며 "내국인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숙련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체계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무분별한 청년 선발이 아니라, 블루칼라 업종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우선 선발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예상한다. 최 연구위원은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이나 용어, 도구 등 기본적인 것들을 이론에

2022년 건설현장 평균연령



*표본 : 1,327명
*자료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베테랑 노동자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능등급제와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고 타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숙련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높여 숙련자가 블루칼라 업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근속 연수나 숙련도에 따른 대우가 이뤄져야 청년 노동자가 블루칼라 업종으로 유입되고 오래 머무를 수 있기에,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경력연수 책정 기준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직장 내 지위 상승도 동반돼 청년층에게 직업적 비전을 제시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블루칼라 업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 등 기관에서의 교육은 물론, 안전 수칙이나 안전을 위한 법령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함이 강조된다. 블루칼라 업종의 노동 현장은 위험하다는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도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강 교수는 "시민들의 인식은 교육을 통해 바뀌어나야 한다"며 "노동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노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루칼라 업종의 노동 환경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직업적 비전을 보여줘야 청년층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제식 교육: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강사가 교습하는 방식이 아닌, 제자가 스승의 실무를 보조하며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그 법의 어제와 오늘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으며 길거리에 나앉은 206명의 피해자가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 426억 원을 받아 챙기며 무려 772채를 사기 행위로 매수한 일명 '빌라왕' 때문이다. 지난 10월 이 빌라왕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수많은 빌라왕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마련됐음에도, 특별법의 미비함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보금자리 없이 지낼 위기에 놓였다.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만들어졌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기 의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면 국가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새집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피해주택을 담보로 잡아 대출 등을 사용해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피해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우선매수권'이 보장된다.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을 때 발생한다. 수도권을 포함해

예방책 빠진 전세사기피해자법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셋값이 상승하게 됐다. 이에 주택을 구매할 만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끌어와 주택을 구매하고,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형성된 전셋값으로 임차인을 받아 이익을 취하는 '갭투자'가 성행하게 됐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김영대(법무사김영대사무소) 법무사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격이 같이 하락하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갭투자를 통해 수십 채의 건물을 소유한 빌라왕 다수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며 수천 명의 국민이 집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살 곳을 잃은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회가 올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다. 권호근(국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가격이 급상승했지만 이후 급락이 높아지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며 전세가격이 폭락했다"며 "갭자기 하락한 전세가

격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사기 의도와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국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임차인에게 사기 의도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를 지우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이지 않는 의사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 입증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현재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피해자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법무사는 "임차인 스스로가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할 만큼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임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있어도, 다가구주택은 이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세대가 나뉘어 있어도 한 세

대를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각 세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려면 해당 주택에 입주한 모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적용받음으로써 피해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지만, 나머지 세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경매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서진형(공정주택포럼) 대표는 "다가구주택은 임차인 각각 구분된 소유권이 없어 건물 전체를 매수해야 하지만 피해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매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완하는 입법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지원 방안은 사후 대책에 불과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진유(경기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부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는 "보증금 미반환 사기는 주로 매매가에 대비한 전세가의 비율이 높은 주택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주택이든 전세보증금은 매매가의 70%를 넘을 수 없다"고 전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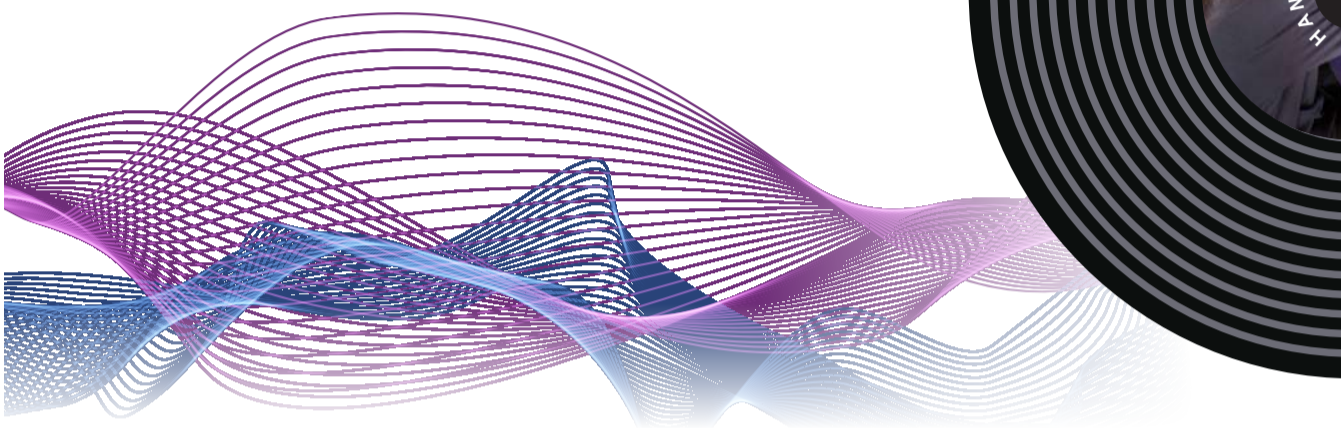


〈편집자주〉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어느 세대나 그랬듯, 현 젊은 층도 자주 듣는 물음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기자가 그 속으로 뛰어 들었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기자를 따라 청년이 열광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최근 당신이 홀로 거리를 거닐 때 길거리 소음을 들은 적이 있는가. 대부분 없을 것이다. 이어폰 넘어 들리는 직접 택한 소리만을 듣기 때문이다. 나아가 소리를 즐기는 방식이 더 다양해졌다. 듣는 것을 넘어 직접 만지고 경험하며 소리를 즐기기 시작했다. 색다른 청각적 자극을 주는 ‘ASMR’부터 아날로그적인 매력에 듬뿍 담긴 ‘LP’, 그리고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패션 아이템이 된 ‘헤드셋’까지. 누구보다 다양하게 소리를 즐기는 청년들의 행보를 따라가 본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소리



▲LP를 턴테이블에 넣어 음악을 감상하는 기자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청각에서 오는 즐거움을 향유하는 양상에 주목해 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오디오 콘텐츠 소비가 활발해졌다는 분석이 있다. 집에만 있는 생활, 일명 ‘집콕’만을 반복하며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던 청년들이 오디오 콘텐츠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끝없는 영상 콘텐츠 소비로 쌓인 눈의 피로도를 풀기 위해서다. 서용구(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OTT가 발달하면서 청년들이 시각적 정보를 과하게 소화하고 있다”며 “인간의 오감 중 시각만 집중적으로 발달하다 보니 감각의 균형이 깨져, 청년들이 청각적 요소를 보충하고자 오디오 콘텐츠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디오 콘텐츠 향유에 있어 ‘노이즈 캔슬링’은 빼놓을 수 없는 방식이다. 청년들은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을 활용해 외부 소리로부터 차단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김현식 문화평론가는 “사회관계나 인간관계 속에서 피로를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며 “오디오 콘텐츠를 통

해 일상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힐링 공간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오디오 콘텐츠는 ‘멀티태스킹’ 현상에도 도움을 줘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오디오 콘텐츠는 청음과 동시에 다른 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도서관 백색소음, 자연의 소리, 오디오북과 같은 이전보다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면서 일상 곳곳에서 오디오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다. 이흥주(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려는 청년들의 욕구가 오디오 콘텐츠의 사용량을 늘렸다”며 “바쁜 직장인들은 출퇴근할 때,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오디오 콘텐츠를 소비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낸다”고 전했다.

ASMR의 무한확장

속삭이는 소리에 등줄기가 찌르르 울리며 ‘팅글’이 느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는가. 이러한 소리 자극을 중심으로 한 ‘ASMR’ 오디오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자율 감

각 쾌락 반응을 뜻하는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은 뇌를 자극하는 오디오 콘텐츠다. ASMR은 바람이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물건을 두드리는 소리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ASMR은 세밀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듣기 어려운 소리로 청년들에게 색다른 흥미를 선사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듣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힐링을 선사하는 것이다. 일부 ASMR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돼 공부할 때나 운동할 때 효율을 높여준다.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1학년 재학 중인 서정은 학생은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귀 청소 ASMR, 물건 탭핑 ASMR 등을 들으면 청각적으로 편안함을 느껴 비교적 쉽게 잠들 수 있다”며 “ASMR이 집중도도 높여줘 공부할 때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ASMR은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와도 결합하며 콘텐츠의 다양성이 확장되고 있다. ASMR 전문 크리에이터도 등장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ASMR 전용 코너가 생겨날 만큼 ASMR 먹방 콘텐츠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탕후루, 보석 젤리 등의 유행 역시 ASMR 콘텐츠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 교수는 “소리가 인간의 소비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광고음악인 CM송을 듣고 해당 브랜드를 떠올리는 경우도 이와 같은 소비자의 청각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SMR을 접목한 전시 공간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기자가 직접 ASMR을 들을 수 있는 전시 공간에 가봤다. 전시 공간에 들어서니 갈대숲 사이에 들어선 커다란 스피커가 보인다.



▲기자가 스피커로 들리는 갈대소리를 듣고 있다.



▲기자가 직접 헤드셋을 꾸미는 중이다.

피커가 보인다. 갈대가 바람결에 맞춰 넘실대는 소리가 생동감 있게 들린다. 인조 갈대속 놓인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실제 갈대숲 못지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는 잘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대형 스피커로 크게 들으니 몰랐던 갈대의 이면을 보니 시각 외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LP가 주는 맛은 포기 못하지

현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이전의 음악 세계까지 들여다보는 젊은 세대가 많아졌다. 그 중심에는 ‘LP(Long Playing record)’가 있다. LP를 사서 턴테이블에 넣어 소리가 나올 때까지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 문화평론가는 “현재는 손쉽게 음악과 소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자신의 노력과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만족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LP는 자신이 직접 구매하고 관리하며 직접 틀어야 하므로 그런 노력과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사이에서 번진 ‘레트로’ 유행 또한 LP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켰다. 레트로란 과거의 모양, 풍습 등으로 돌아가거나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좇아 행하는 것을 뜻한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로 불리는 일명 ‘7080 세대’에서 유행하던 LP를 다시금 찾기 시작했다. 과거의 것이었던 LP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개성 있고 최신 유행을 잘 따른다는 뜻의 ‘힙스러운 것’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채연 학생은 “평소 LP로 음악을 듣는데, 휴대폰 스피커나 이어폰으로 듣는 것보다 옛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나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져 선호한다”고 말했다.

LP를 듣는 방법도 다각화됐다. LP를 한 곳에서 크게 틀어 한 음악을 다 같이 즐기던 과거와는 다르게 각자가 헤드셋을 통해 LP를 즐기기 시작한 것이다. 직접 원하는 LP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LP 카페 ‘뮤직킴 플렉스서울 안남인사동점’이 청년들 사이에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에 기자도 방문해 봤다. 오픈 시간에 맞춰갔지만 금세 사람이 찰 정도로 인기가 많은 장소였다. 이곳에서는 LP가 장르마다 분류된 공간이 존재해 수많은 LP 속에서 취향에 맞는 LP를 고를 수 있었다. 생소한 음악들이었지만, 일주 선호하는 풍의 음악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수많은 LP사이에서 어떤 음악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하며 자리에 앉는다.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하나의 재미 요소로 다가왔다. 직접 LP판에서 LP를 꺼내 턴테이블에 넣어 헤드셋으로 흘러 나오는 음악을 감상한다. 처음 접한 노래였지만 LP에서 느껴지는 웅장함에 반해 한참 동안 멍을 때리며 음악에 집중했다. LP를 듣고 있자니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음악적 취미를 가진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이 교수는 “디지털 음질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LP가 신선한 경험이 된다”며 “LP 음반을 골라서 플레이어를 통해 음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어떤 음악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하며 자리에 앉는다.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하나의 재미 요소로 다가왔다. 직접 LP판에서 LP를 꺼내 턴테이블에 넣어 헤드셋으로 흘러 나오는 음악을 감상한다. 처음 접한 노래였지만 LP에서 느껴지는 웅장함에 반해 한참 동안 멍을 때리며 음악에 집중했다. LP를 듣고 있자니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음악적 취미를 가진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이 교수는 “디지털 음질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LP가 신선한 경험이 된다”며 “LP 음반을 골라서 플레이어를 통해 음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소리를 착용하다

‘Y2K’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하는 레트로의 방향이 2000년대로 향한 것이다. 2000년대 유행 문화인 Y2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헤드셋이 ‘Y2K 패션 아이템’으로 청년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헤드셋으로 음악을 듣지 않아도 착용만으로 트렌디한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교수는 “청년층에게 헤드셋은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포인트 액세서리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들은 헤드셋을 착용함으로써 차단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든다. 헤드셋을 착용하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거나 집중 중인 듯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서 교수는 “세상을 차단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청년들이 헤드셋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헤드셋 인기에 발맞춰 헤드셋 꾸미기 또한 유행하고 있다. 보이는 것에 민감한 청년들이 헤드셋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기자도 헤드셋을 구매해 직접 꾸미었다. 귀여운 스티커와 눈에 띄는 보석 스티커를 여기저기 붙여봤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기자의 취향을 듬뿍 담은 헤드셋 커스텀이다. 직접 꾸민 헤드셋을 착용해 보니 다른 이들에게 나의 개성과 취향을 뽐낼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도 든다. 이에 더해 커스텀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의 재료를 고르는 순간까지도 하나의 즐거운 일상으로 느껴지기에 일종의 ‘다이얼’과 비슷한 취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서 학생은 “나의 개성을 헤드셋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헤드셋 꾸미기를 통해 유일무이한 나만의 것을 갖게 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팅글 : 따끔하다. 얼얼하다

콘텐츠 범람 시대 속 고유한 철학을 담아낸다

EBS 황세연 PD



사진 제공 : 황세연

▲ 황세연 PD가 당대의 출연진인 '킬희 교수(좌)', '빙철 조교(우)'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바야흐로 영상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다. 지식을 전달하고 공감을 선사하는 장은 TV에서 유튜브로, OTT 플랫폼으로 점차 넓어졌다. 교육 콘텐츠 또한 단순 강의식 콘텐츠에서 체험을 접목하기도, 토론을 들어오기도 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권위 있는 한 사람의 지식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잔잔한 호수라도 같은 교육 콘텐츠에 돌맹이를 던지며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EBS의 황세연(34) PD다. 사람마다, 교육의 내용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식은 다르다고 여기는 그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사의 PD로서 이러한 철학을 널리 펼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정진한다. EBS의 인기 유튜브 채널 '딩대 DingUniv(이하 딩대)'가 그 사례 중 하나다. 딩대는 '딩동댕대학교'의 졸업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대학을 표방한다. 어른에게 꼭 필요하지만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정보를 유튜브를 통한 웹예능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딩대의 콘텐츠다.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그가 단연 돋보이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일 테다. 황 PD처럼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콘텐츠 제작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경험을 따라가 봤다.

황 PD의 '콘텐츠 사랑'은 학창시절 시작됐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로의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 외로움을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로 달랬다. 그날, 그때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 음악을 듣기도, 영화를 감상하기도, TV 소리로 침묵을 채우기도 했다.

"유학 생활이 외롭지 않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특히 음악은 3~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분위기를 바꿔 준다는 점에서 정말 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장르는 크게 가리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 음악을 좋아했어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장면과 감정적인 여운을 선사해 준다는 점에서 영화도 제가 사랑한 콘텐츠예요. TV 프로그램은 특히 예능을 좋아해서, 〈무한도전〉이 늘 든든한 밥 친구였죠."

형식과 장르를 가리지 않는 콘텐츠를 향한 그의 열정은 대학까지 이어졌다. 영미어문학을 전공으로 택한 그는 문학이라는 콘텐츠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문학을 전공하며 뛰어난 작품들을 깊이 공부해 본 경험이 후에 PD로서 콘텐츠를 섬세하게 바라보는 데 보탬이 됐다고 전한다.

"이야기와 인물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영미어문학에 흥미가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 세 편 정도의 작품을 아

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라는 작품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 인물의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과 내면에 초점을 맞춰 작문이 전개되는데, 인물을 이토록 섬세하게 조명할 수 있음에 감탄했어요."

여러 콘텐츠에 관심을 두던 그는 음악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음악과 관련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음악에 대한 관심은 그를 라디오 방송국으로 이끌었다. EBS FM 라디오 프로그램의 조연출로 일하게 된 것이다. 조연출이란 말 그대로 연출, 즉 PD가 의도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이다. 라디오 프로그램 조연출로 일하는 과정에서 그는 방송 현장의 매력에 무엇인지 알게 됐고, 방송 PD를 꿈꾸게 됐다.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을 느끼게 된 계기였다.

"음악 PD를 꿈꾸기도 했고, 작사가가 되기 위해 진지하게 준비했던 기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곡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EBS FM 라디오 프로그램의 조연출로 반년 정도 일했죠. 청취자들이 보내온 사연을 보면서 방송이 대중의 생활에 스며들고 사람들의 매일을 다독여 준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아침에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한 마디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너무 힘들었던 날에는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면서 기분을 푸는 것처럼요. 누군가 내 가만둔 콘텐츠를 보면서 기분이 나아지고 감상을 정리 할 마음이 든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PD 지망생과 같은 취업 준비 기간을 보낸 후 EBS에 방송 PD로 입사하게 된 그는 의학 다큐멘터리 〈명의〉의 조연출을 맡게 됐다. 그는 〈명의〉에서의 시간을 통해 방송 조연출의 역할에 대해 몸소 익히는 것은 물론, 방송을 만드는 데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PD와의 소통이 조연출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PD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행동을 더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함을 잘 인지하고, 믿고 응원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수많은 동료의 손길이 있어야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요."

황 PD는 〈명의〉 이후 〈생방송 특! 특! 보니 하니〉와 같이 인지도가 높고 팬층이 두터운 프로그램에서 연출을 맡았고, 〈뽀뽀 뽀뽀〉의 'CP'로 활약하기도 했다. CP(Chief Producer), 즉 책임 프로듀서는 한 프로그램의 전체를 총괄하는 PD를 말한다. 〈뽀뽀 뽀뽀〉는 어린이들이 MC와 함께 매 회 상에서 물건을 꺼내고, 그 물건을 가지고 놀며 음악적 개념을 발견하고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음악 예능'이다. 교육 콘텐츠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진짜 즐기

며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

"시청자층으로 설정한 세대가 누구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주제가 무엇이나에 따라 알맞은 모양의 교육이 따로 있어요. 어떤 세대에게는 '철관 강의'가 가장 능률적이지만, 다른 세대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요. 특히 제가 만들어 온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인 어린이 또는 청년층에게는 재미있고 친근한 형태로 다가가 프로그램과의 접점 자체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뽀뽀 뽀뽀〉를 제작할 때는 기존 EBS 프로그램의 문법을 따르는 대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콘텐츠나 예능 방송을 많이 연구했죠. 대회 상에서 물건을 꺼내는 '인박싱'을 주요 콘셉트로 삼은 것이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장치예요."

딩대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그의 신념을 펼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딩대의 CP였던 이슬이나 PD가 〈뽀뽀 뽀뽀〉와 같은 예능형 교육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황 PD에게 딩대로의 합류를 제안했다. 황 PD는 딩대와 같은 웹예능 제작이 교육 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사에서는 흔치 않은 기회라는 점에서 제안을 승낙했다.

"처음 딩대 연출을 맡게 됐을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에 적합한 아이템을 찾고, SNS를 조금 더 활용해 보는 일을 먼저 시작했어요. EBS에서 2030을 주 시청자층으로 설정한 웹예능을 제작해 볼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즐거움 마음으로 임했던 기억이 나요."

딩대는 대학교를 주요 콘셉트로 삼아 정보를 전달하며, 그로 인해 주요 출연진의 이름에도 대학생에게 익숙한 직함이 붙는다. 코끼리 '킬희 교수'와 수리부엉이 '빙철 조교'가 그들이다. 딩대의 콘텐츠에 대해 청년층이 보이는 반응은 대단한 수준이다. 9월 4일 '한국방송대상 뉴미디어 부문 작품상'을, 8월 16일 '2023 뉴미디어 콘텐츠상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 또한 보이고 있다. 황 PD는 딩대의 인기 비결로 주 시청층인 청년층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아이템 선정을 꼽았다.

"한 마디로 '기려운 데를 긁어주는 느낌'을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른이 돼도 궁금하지만,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애매하거나 어려운 주제들, 기령 '뽀뽀'를 찢지 않아요(항문 건강 지키는 방법) 같은 아이템을 선보였을 때 많이 공감하며 즐겨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작진 모두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 등을 꼼꼼히 보면서 청년들의 화두나 관심사를 따라가려 힘써요. 대학생 친구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막이나 제목 등에 각종 유행어를 차용하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점도 인기 비결로 꼽았다. 수많은 콘텐츠를 다방면으로 흡수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콘텐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이템을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년층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흐름에 따라가려 합니다.

"2030은 각종 OTT와 SNS 등을 통해서 트렌드를 시시각각 흡수하는 세대잖아요. 주요 시청자층으로 설정돼 있다 보니, 그들이 몸을 맡기고 있는 거대한 흐름 속에 당대도 함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노력해요. 다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딩대 또한 '바로 지금의 콘텐츠'라는 점을 부각하는 거죠."

황 PD는 시청자 유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유입된 시청자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일방·하향적 내용 전개를 피하려는 노력도 이어간다. 이 또한 철관 앞에서 이뤄지는 전통적 방식의 교육이 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유일무이한 정답을 주입하지 않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유튜브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피드백을 파악하고 수용하는 등 '딩대생'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내용의 전개가 일방적이거나 하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정보 전달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됐어요. 내용 그 자체의 측면에서도 절대적인 공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알리는 대신, 한 화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출연자들을 통해 보여주려고 해요. 플랫폼 송출에서의 일방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부지런히 확인해요.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시청자가 원하는 부분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답변하려고 해요."

콘텐츠에 대한 그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진정 도움을 주는 방송을 만들어 내는 황 PD, 그가 생각하기에 PD를 포함해 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은 바로 '실무'다. 방송국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실무를 학습할 수 있는 곳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여러 직군 중 자신에게 잘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도 역설한다.

"요즘은 방송국 입사만이 PD가 되는 유일한 창구가 아니잖아요.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 PD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작 환경에서든 현장에서의 실무를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에서 잘 어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을 시작한 후에도 본인이 원하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스스로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박건희 기자 enqnk@hansung.ac.kr

우리가 만든 지구의 역사, 인류세

지질시대 변화 이어져
지구 환경 바꾼 인간
인류세 도입 논의 의의 有

인류가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다. 기온이 과거의 여름보다 더 높은 이상 고온 등의 기상이변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까지 속출하고 있다. 인류가 지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일은 계속해 발생하는데, 그 중 '인류세'의 도입을 논의해 볼 만하다. 지금 지질학계에서는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질시대, 그리고 인류세는 과연 무엇이며, 인류세로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지질시대란 지구가 형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구 지층 역사를 말한다. 지구시스템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미래의 지구 상태를 예측하려면, 이전까지 지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야 하기에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김효인(경상국립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지질시대는 지구의 변동이 지구시스템의 진화 경향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이해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지층의 역사가 곧 지질시대이기에, 지질학적으로 큰 변동이 발생하면 새로운 지질시대로 전환된다. ▲대규모의 화산 폭발 ▲빙하기의 도래 ▲운석의 충돌 ▲급격한 기후변화와 같은 지질학적 사건이 지구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면 새로운 지질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층 연구를 통해 확인된 대규모의 지질학적 변동은 지질시대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지질학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암석이나 빙하코어*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지층은 암석과 토사로 이뤄져 있기에, 암석을 관찰하면 지층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빙하코어에 포함된 메탄, 이산화탄소 등의 구성물질을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기후변화 등을 알아낼 수 있기도 하다. 박정재(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빙하코어를 분석하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질학적 변동에 의해 생물종의 멸종이 일어나는 등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지질시대를 바꾸는 하나의 요인이다. 대표적인 생물학적 변동은 '대량 멸종'이 있다. 비



교적 짧은 시간동안 많은 동물이 멸종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이 출현하는 등 변화가 나타난다. 김 교수는 "대량 멸종은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 아니라 소행성의 충돌과 대규모의 화산 활동 등 지질학적 변동에 의한 갑작스러운 생물종의 변화"라고 말했다.

생물종의 변화는 화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생물의 흔적을 나타내는 화석은 생물이 죽으면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 있다가 굳어지면서 형성되고, 파도나 바람에 의해 땅이 깎이면서 지표면에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화석을 통해 고생물의 ▲생존 기간 ▲분포 면적 ▲서식 환경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에 생긴 화석일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임을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지층 내 존재하던 화석의 종류가 급변했다는 것은 지질학적 사건이 그 시대의 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지질시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질시대가 시작된 시점의 지질학적 흔적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국제표준층서구역'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제층서분류위원회는 전 지구적인 변화의 흔적이 보존되고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 확인될 경우, 그곳을 국제표준층서구역으로 지정한다. 김 교수는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질시대 구분을 위해 국제층서분류위원회는 지질시대가 변하는 경계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단위를 변화의 규모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누대 ▲대 ▲기 ▲세 ▲절이다. 각 단위들은 지질학적 변동이나 생물의 진화 양상에 따라 세분화된다. 구분단위가 클수록 지질학적·생물학적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김 교수는 "지질시

대의 구분단위는 지질학적 변동으로 인한 지구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규모를 기반으로 어떤 단위의 변동으로 정의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단위를 바탕으로 지질학계에서는 지구가 형성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지질시대를 정의해 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현생누대 신생대 제4기 홀로세'라고 한다. 현생누대는 고생대 캄브리아기부터 현재 홀로세까지 포괄하는 지질시대의 가장 큰 구분단위다.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뉜다. 제4기는 신생대에서 세분화된 단위로,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가 이에 포함된다. 고생대는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중생대가 시작하기 전까지를 나타낸다. 고생대임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화석은 삼엽충의 화석으로, 이 시대에는 주로 무척추동물, 어류 등이 출현했다. 파충류가 번성했던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신생대 전까지 지속됐으며, 암모나이트 등이 대표적인 화석이다. 신생대는 6천 6백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매머드 등 포유류가 번성하며 인류가 탄생한 시기다. 이진용(강원대학교 지질학전공) 교수는 "대는 누대를 세분화한 시대로, 지구의 지질학적 변동과 생물의 진화 양상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약 11,700년 전 시작된 홀로세는 그리스어로 '전체'를 의미하는 'Holos'와 '새로움'을 의미하는 'Cene'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로, '모든 화석이 새롭게 구성된 시기'라는 의미를 지닌다. 홀로세 이전의 시기인 플라이스토세의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생물종과 지층에 큰 변화가 발생했고, 홀로세가 도래했다. 이 교수는 "빙하기 소멸되면서 매머드 등의 포유류가 사라졌

며, 빙하에 덮여있는 지층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동식물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현재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지질학적 변동과 생물학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홀로세와 구분되는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시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인류세(Anthropocene)는 인류를 뜻하는 'Anthropos'와 'Cene'가 합쳐진 말로, '인류가 빛을 지질시대'라는 의미다. 지구의 일부에 속하는 인류가 우점종***으로 자리 잡아 지구시스템을 급속도로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류로 인한 새로운 지질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임현수(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인류세의 도래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환경은 돌이킬 수 없이 변화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학자들은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시대가 도래하게 된 요인으로 1950년대 전후로 활발했던 '핵실험'을 지목한다. 핵실험이 지층에 큰 충격을 주면서 인공지능이 일어나 가까이 있는 지층에 균열이나 함몰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미 많은 생물들에게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등 핵실험은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 교수는 "핵실험으로 인해 방출된 방사능 물질이 지층에 퇴적돼 지층 형성 과정을 방해하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류의 산물인 쓰레기도 지층과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미세플라스틱은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버려진다.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의 몸에 축적되면 염증 등을 일으켜 멸종동물이 생기고 해양 생태계 변화를 불러온다. 이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은 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류가 지구를 변화시킨 증거가 모여 있

는 캐나다의 '크로퍼드 호수'가 인류세의 국제표준층서구역으로 정해졌다. 크로퍼드 호수 일대에서는 핵폭탄의 원료로 쓰이는 플루토늄과 화학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 입자, 미세플라스틱 입자 등의 물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구에 영향을 미친 인류 활동의 증거들이 보존돼 있기에 크로퍼드 호수가 국제표준층서구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김 교수는 "크로퍼드 호수의 퇴적층에서 명확한 인류의 핵실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며 "이처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표식으로 지질시대의 변화를 정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류세의 시작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부분의 학자는 ▲인구 증가 ▲기온 상승 ▲방사능 확산 등이 발생한 시기인 1950년을 인류세의 시작 시기로 제안한다. 하지만 수백만에서 수천만 년 단위로 나뉜던 기존 지질시대의 주기와는 다르게 11,700년 만에 바뀌는 것은 지나치게 짧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 지층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했다는 흔적은 확연하게 발견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더 세밀한 단위의 지질시대 구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산한 만큼 관련한 연구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다. 남유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질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약 1950년경의 인류의 활동을 잘 나타내는 지층을 찾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극의 퇴적물이나 해양퇴적물에 기록되는 인류의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인류의 영향이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류세의 도입 논의는 인류가 파괴한 생태계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어 주고 환경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교수는 "인류는 지구를 이용 대상으로 변형시키고 훼손시켰다"며 "인류세로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통해 미래의 기후나 환경 위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지구와 공생하는 관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구시스템 : 대기권·수권·생물권 등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권역들의 집합체
**빙하코어 : 극지방에 오랜 기간 묻혀 있던 빙하에서 추출한 얼음 조각
***우점종 : 생존·적용·번식 과정에서 다른 종보다 우위에 있는 종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2024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내일로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 때
노력만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한성대 대학원이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찬 도약을 함께합니다.

일반대학원(주간)					특수대학원(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모집전공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모집전공		
박사	인문계	인문계	한국어교육학과	경영관리*	경영대학원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경영관리*		
			사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호텔경영, 관광경영, 외식경영			
			문화정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마케팅, 글로벌경영			
			문화콘텐츠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산업, 사회복지상담			
			경영학과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정책, 사회안전관리			
	사회계	사회계	행정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무역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경제·부동산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예·체능계	예·체능계	학과간 협동과정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화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화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문화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세움융학과	융합보안학과
석사	석사	사회계	한국어교육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사학과	문화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화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문화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회화과	무용학과
예·체능계	예·체능계	예·체능계	회화과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 정원의 외국인특별전형은 모집하지 않음 ※ 신설 또는 명칭 변경 전공임

| 원서접수 및 발표 |

- 원서접수기간 : 2023. 10. 23. (월) 10:00 ~ 11. 3. (금) 17:00
- 접수방법 : [대학원홈페이지 - 입학안내 - 모집요강]에서 모집요강 확인 후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를 통해 인터넷접수
- 면접고사 : 2023. 11. 25. (토) 10:00 화대(전공) 지원인원에 따라 면접고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 2023. 12. 7. (목) 오후 대학원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홈페이지 : http://gs.hansung.ac.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8) 서울시 성북구 삼성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상성관 1002)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아시아 게임이 쏘아올린 병역이라는 시대적 과제

190.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따낸 메달의 개수다. 금메달 42개로 종합 3위에 안착하며 준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귀국길은 그야말로 '금의환향'이었다. 그러나 금메달과 함께 '병역 특례'를 따낸 일부 선수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굵지 않았다. 참가국이 10개에 미치지 않거나 아마추어 선수가 대부분이었던 일부 종목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통해 병역 특례를 얻은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병역법』에서는 '아시안 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병무청장이 정한 예술·체육과 관련한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군에 입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 일반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을 '병역 면제'처럼 인식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국위선양(國威宣揚)'에 기여하고 문화를 창달할 예술·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떨치게 한다'는 뜻의 국위선양,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국위선양'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아시안 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법령에서 못박아 두고 있다고 하지만, 1990년부터 이어져 온 기준에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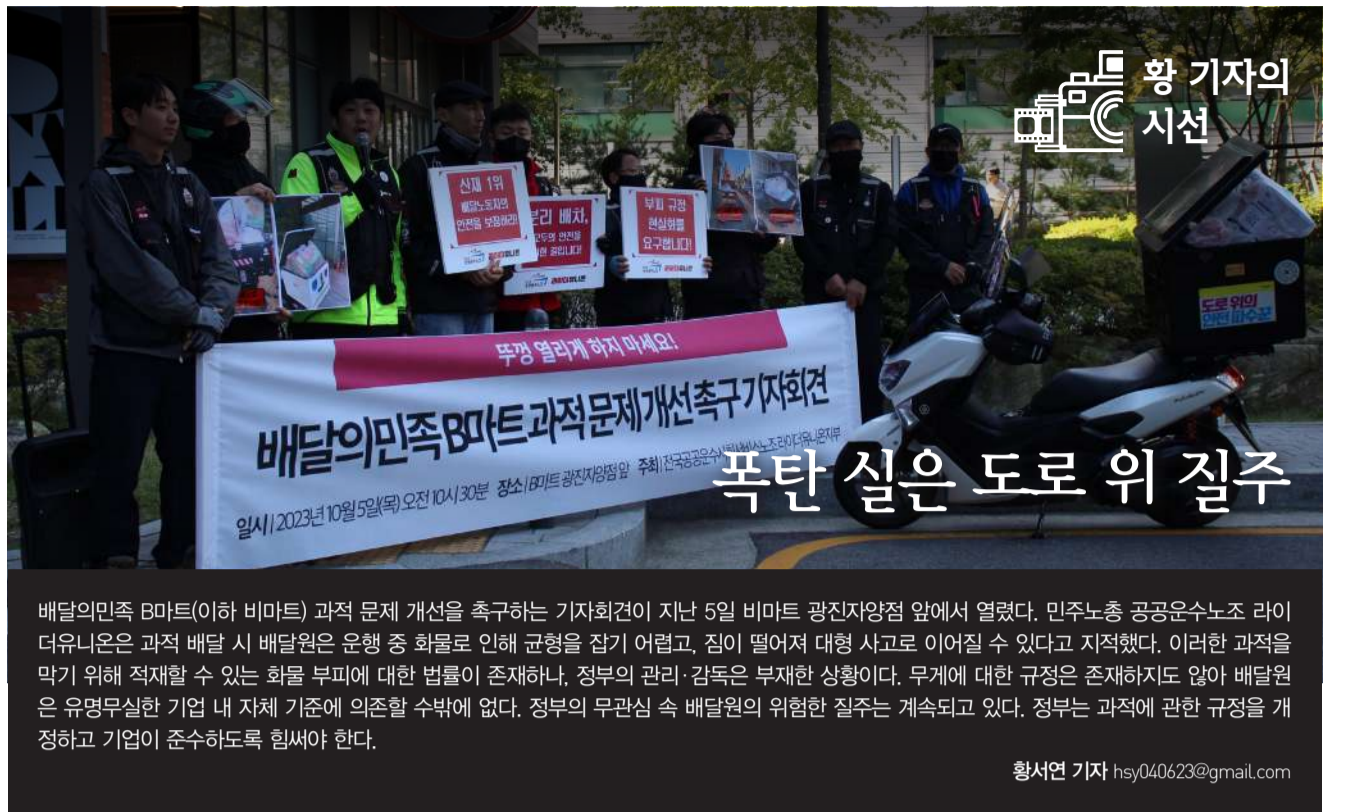
물론 태극기를 달고 메달을 따오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음식과 음악, 문화가 'K-'자를 달고 지구 각지로 수출될 만큼 우리의

위상이 과거와는 다르기에, 병역 혜택으로 국위선양의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수준은 넘어섰다고 본다. 시대에 따라 국위선양의 형태가 달라져 왔지만, 무엇이 이 시대의 국위선양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가.

무엇보다 이 같은 병역 특례가 병역의 의무를 '형벌'에 가까운 것으로 의식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현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병역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신성시하고 있지만, 병역 의무에 대한 배제가 '혜택'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금메달의 대가가 '영웅이 될 기회'의 박탈이라는 것은 역설이 아닌가.

국방의 의무를 진정 신성시하는 국가라면, 병역 특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통해 병역 특례가 주어진다면 병역의 의무는 적당히 피해야 할 성가신 존재가 될 것이다. 징병 가능한 인력이 감소하며 모병제나 여성의 군입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기에, 병역 특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방향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e스포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은 한 선수는 "시대를 잘 타고난 것 같다"며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시대를 잘 타고났든 아니든 국가를 지키는 일은 누군가의 몫으로 남아있을 것이기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정성혁 편집국장



배달의민족 B마트(이하 비마트) 과적 문제를 개선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5일 비마트 광진자양점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과적 배달 시 배달원은 운행 중 화물로 인해 균형을 잡기 어렵고, 짐이 떨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적을 막기 위해 적재할 수 있는 화물 부피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나, 정부의 관리·감독은 부재한 상황이다. 무게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아 배달원은 유명무실한 기업 내 자체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무관심 속 배달원의 위험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기업이 준수하도록 힘써야 한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기사수첩

국민의 집회·시위에 제동을 거는 경찰,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경찰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 금지 추진', '집회·시위 신고 접수 단계에서의 제한·금지 통지 적극 검토' 등이 그것이다.

경찰청은 소음 방지와 같은 국민의 평온권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집회·시위 금지 시간으로 규정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를 유발할 수준인지 확실치 않은 소음의 발생을 막기 위한 특정 시간대의 집회·시위 완전 봉쇄는 목적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치다. 소음 규제가 목적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소음 규제 기준

자유의 어긋난 회귀

에 따라 피해 정도를 판단하고 규제하면 되니 말이다.

혹자는 집회·시위가 심야 외 시간대에도 충분히 개최될 수 있기에 심야 시간대의 집회·시위 금지가 타당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노동자다. 낮 시간대에는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집회·시위 개최 시간대에는 제한이 없어야 함이 마땅하다.

집회·시위 신고접수 단계에서 금지 통지를 검토하는 것 역시 문제다. '집회허가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교통질서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집회·시위 방식 일부 제한은 공공질서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내려야 개최가 가능

한 집회허가제를 시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될 수 없다.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본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민주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경찰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선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거리로 나선 사람들에게 집회·시위는 '최후의 수단'일 수 있다. 마지막 방법으로서 집회·시위를 택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국가가 되기를 염원한다.

박건희 기자 enqnk@hansung.ac.kr

■ 낙산에 올라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고

얼마 전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저 재난 영화라고 생각했으나, 영화를 보니 토론할 만한 논제가 많았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멸망하는 세계를 다룬 영화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에서 오직 한 아파트만 살아남아 '외부 생존자들'과의 공생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이야기이다. 이 영화에서는 고립된 아파트에서의 인간관계와 도덕적 고민을 다루며 우리 삶에서 토론이 필요한 중요한 논제를 던진다. 만약 당신이 영화 속 등장인물이라면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파트에서 외부인을 내쫓을 것인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논제에 대해 필자의 입장은 후자다.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태어나고 자란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협력, 공동체 구성은 우리의 본성에 내재된 것이다. 아무리 이기주의에 절여진 현대 사회라고 해도, 만약 당신 앞에서 누군가가 간절한 눈빛으로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면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할 자신이 있나?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놓여있던 환경이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는 모두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다. 그렇기에 '외부인을 내쫓는다'도 옵션 중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외부인을 내쫓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사회적 갈

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극 중에서도 쫓겨난 외부인 중 몇몇 생존자들이 문쳐 아파트 주민에게 반격하고, 결국 유일한 안식처였던 아파트마저 몰락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애초부터 비롯되지 않기 위함도 외부인을 수용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외부인을 수용했다면 '반격'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와 인간관계에는 고립과 분열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 더 큰 가치를 제 공한다고 생각한다.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재은(사회과학 1)



박희진 기자 fun1120@naver.com

기자사령

임수습기자 권수연(인문 1)
김의진(인문 3)

동정란

박진호(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박 교수는 지난 9월 27일 강동구청 강동구도서관정보화 총괄기획가로 위촉됐다.

오종택(기계전자공학부) 교수
오 교수와 김호경 학생은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Vehicles에 「A Camera Center Estimation Based on Perspective One Point Method.」 논문을 게재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박선옥 편집국장 정상혁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 의화정

유학생 30만명 시대 준비하기

지난 8월 16일 정부는 2022년 기준 16만 7천명 정도인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2027년까지 3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스터디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세계 13위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비율이 세계 10위권으로 상승하게 된다.

유학생 유치는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이 국익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 정책 과제이다. 실제로 다수의 보고서들이 유학생 유치가 수용국 내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수용국 대학 차원에서는 유학생 유치로 인해 외국에서의 대학 홍보, 외국 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증대, 학생 및 교직원 국제교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유학생의 의식주 및 여가생활 영위에 파

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국가 차원에서는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 및 정주하면서 젊은 고학력 인구 확충 효과가 나타난다. 유학생과 함께 공부한 내국인 학생 개인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다. 내국인 학생들은 외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유학과 인턴십 등 외국생활 도전에 강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나아가 외국인 친구들을 통해 형성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국제무대에 진출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유학생이 많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부수적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용할 유학생의 유형과 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입국하여 등록한 유학생이 성

공적인 유학생을 통해 우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며, 내·외국인이 친밀해지는 다문화친화적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가능하다.

국내 대학의 유학생 수는 2004년 정부차원 유학생 유치 전략인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급증했다. 우리학교도 이때부터 유학생이 많아졌다. 이번 프로젝트 전개로 향후 우리학교 유학생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 유학생 증가는 학생들이 열린 사고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인으로 성장하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이 조건을 잘 활용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준비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그 시작은 공통적이다.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열린마음이다.

오정은(일반대학원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

제38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당신의 글이 모두에게 전해지길

모집기간

2023년 9월 18일(월)
~ 10월 25일(수)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제출형식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e-mail로만 접수 가능)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발 표

한성대신문 595호 (12월 4일 발행)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장 (가작 30만 원)
시 - 40만 원 및 상장 (가작 20만 원)

비교과 포인트

단편소설 응모 40pt, 시 응모 30pt
당선 후 수상소감 작성 시 10pt 추가 지급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한성대신문